

실업통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자규모 변동과 의미

정 성 미*

I. 머리말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뀌면서 공식실업률이 약 0.1~0.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이로써 IMF 체제 이후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체감실업과 지표실업 사이의 괴리로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 대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 실업자를 산정할 때 구직활동기간을 길게 제시하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던 잠재실업자들의 일부가 공식실업자로 분류되어 구직활동기간을 1주로 규정할 때의 실업자보다 늘어나게 된다. 즉, 숨어있던 실업자가 공식통계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2005년 상반기(1~6월)의 ‘구직기간 4주’ 기준의 공식실업자는 ‘구직기간 1주’ 기준보다 55천명이 늘어난 926천명이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증가한 3.9%이다. 이를 단지 구직기간의 기준 차이로 실업률 0.1~0.2%포인트의 수치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했던 55천명의 잠재실업자들을 어떤 계층에서 공식실업자로 더 많이 흡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실업통계 산정방식의 변경내용을 알아본 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산정 방식변경에 의한 실업률 상승효과와 공식 실업통계에 새로 포착된 55천명의 추가로 파악된 실업자(이하 추가실업자)가 어느 계층에 분포되어 있는지 성별·혼인상태별·연령별·학력별로 나누어 계층간의 차이와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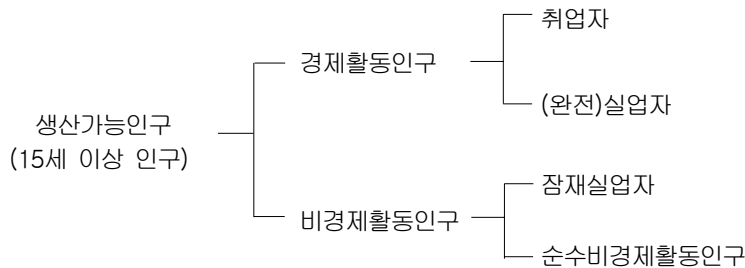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sung@kli.re.kr).

II. 실업률 산정방식 변경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가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가능인구를 추계한 뒤, ILO 기준¹⁾에 근거하여 실업을 정의하고 있다. 실업을 정의하기 전에 노동력 상태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진다. 경제활동인구란 일정연령 이상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눈다. 취업자란 조사대상기간 중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조사대상기간은 1주일 혹은 1일로 정의되어 있다. 다음으로 실업자는 단순히 직업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기간 중 직업은 없으나 취업이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자로 정의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노동력 상태의 구분



이때 실업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인 ‘조사대상기간’에서의 기간변경이 이번에 통계청에서 실업통계 기준을 변경한 내용이다. 즉, 실업통계의 기준변경 이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주에 직장을 구해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해보았음’이라고 답한 경우를 실업자로 분류했다. 즉, 실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구직활동기간을 ‘지난 1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던 것

1) ILO 기준이란 1982년의 노동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채택된 권고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지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다. 그러나 ILO의 기준에는 구직활동기간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 실업을 구하는 기준이 달라 OECD의 경우 회원국들간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1년에 한번씩 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기준에 의해서 표준화된 실업률을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때 구직활동기간을 Eurostat의 기준에 의하여 ‘지난 4주’로 정의한 것이다. 나라별 구직활동기간을 살펴보면, 구직활동기간이 1주일인 나라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실업자를 구분한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 1999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공식실업률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구한 실업자 개념은 일정시점(stock)에서 파악되는 실업자들로 실업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실업자가 바로 이 개념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경우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구직활동의 비용이 아주 높은 경우 취업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실업자에 속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기는 하지만 평상상태(usual status)로 보면 유동성이 강한 실업자이며 완전실업자와 비교하여 잠재실업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잠재실업자란 일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1년 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거나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 혹은 일자리를 탐색하지 않은 자로 정의할 수 있다.

III. 구직활동기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통계의 변화

실업통계의 구직활동기간의 기준 변경에 따른 총괄적인 통계 수치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2005년 1~6월의 경제활동인구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23,616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530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구직기간 1주’와 같은 22,686천명이고 공식실업자는 926천명을 기록했다. ‘구직기간 1주’ 기준의 공식실업자는 872천명으로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인해 55천명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이동한 셈이다. 이를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직활동기간을 길게 제시함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사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탐색하지 않고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를 공식 실업통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표 1>의 구직기간에 따른 전체 노동력 인구를 보면 2005년의 ‘구직기간 1주’ 기준에서 잠재실업자는 127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0.9%를 차지하고 실업률의 15%에 달하지만 ‘구직기간 4주’로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을 변경하여 잠재실업자는 72천명으로 줄어들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 실업률 0.8%로 줄어들어 실업통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구직기간 4주’로 실업통계 기준변경에 의하여 잠재실업자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했었던 55천명의 추가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인구특성 및 계층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시 구직활동기간 기준변경으로 인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루어지며 취업자에서는 변화가 없으므로 취업자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표 1> 구직기간에 따른 전체 실업자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1주	경제활동인구	22,069	22,417	22,877	22,916	23,370	23,558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686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72
	비경제활동인구	14,118	14,162	14,086	14,424	14,347	14,585
	잠재실업자	187	131	79	99	108	127
4주	경제활동인구	22,134	22,471	22,921	22,956	23,417	23,613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686
	실업자	979	899	752	818	860	926
	비경제활동인구	14,052	14,108	14,042	14,383	14,300	14,530
	잠재실업자	122	77	36	58	61	7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먼저 <표 2>를 성별 차이에 따른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구직기간 4주’ 기준의 남성 실업자는 570천명이고, 여성 실업자는 357천명으로 ‘구직기간 1주’에 비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32천명, 23천명의 추가실업자가 파악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2005년 기준 남성 : 74.7%, 여성 : 49.8%)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2005년 기준 남성 : 25.3%, 여성 : 50.2%) 구직활동 기준변경으로 포착된 추가실업자는 남성

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의 유동성 또한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은 취업에 미련을 버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제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5년 기준으로 남성의 잠재실업자는 전체 잠재실업자의 57.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0.9%(‘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1.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즉, 구직기간 기준변경으로 약 0.7%포인트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2002년까지 감소하던 잠재실업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고용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보여진다(그림 2 참조). 반면, 여성의 잠재실업자는 전체 잠재실업자의 4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0.3%(‘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쳐 순수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시사한다.

성별 실업자에서 더 나아가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실업통계의 차이를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남성 추가실업자 32천명 중 기혼에서 18천명, 미혼에서 14천명이 늘어났고, 여성 추가실업자 23천명 중 기혼에서 12천명 미혼에서 11천명이 증가하여 남녀 모두 기혼에서의 추가실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표 3 참조). 그리고 연도별 실업자 추이를 보면 미혼여성의 실업자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특히 2000년에 비해서는 약 31천명이나 증가했다.

〈표 2〉 구직기간에 따른 성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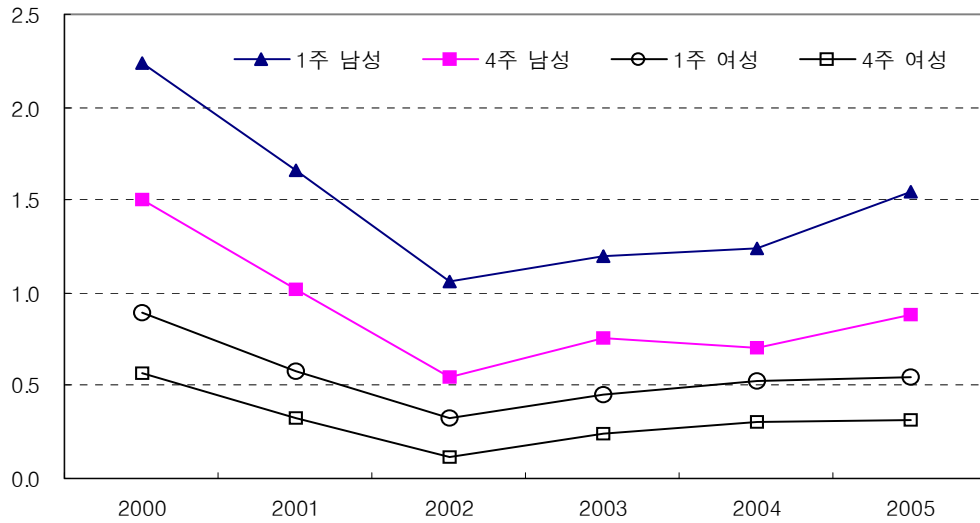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남성	1주	경제활동인구	13,000	13,142	13,411	13,518	13,702	13,816
		실업자	613	561	467	487	509	538
		비경제활동인구	4,522	4,578	4,510	4,601	4,609	4,716
		잠재실업자	101	76	48	55	57	73
	4주	경제활동인구	13,034	13,172	13,435	13,539	13,727	13,848
		실업자	647	591	491	508	534	570
비경제활동인구		4,488	4,548	4,486	4,580	4,584	4,684	
잠재실업자		67	46	24	34	32	41	
여성	1주	경제활동인구	9,069	9,275	9,466	9,397	9,668	9,742
		실업자	300	284	241	289	304	334
		비경제활동인구	9,596	9,584	9,576	9,823	9,737	9,869
		잠재실업자	86	55	31	44	51	54
	4주	경제활동인구	9,101	9,299	9,486	9,418	9,690	9,765
		실업자	332	308	261	310	326	357
비경제활동인구		9,564	9,560	9,556	9,803	9,716	9,846	
잠재실업자		54	31	11	24	29	3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성별·구직기간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주: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구직기간에 따른 혼인상태별 실업자

(단위: 천명)

구분	구직기간	남 성						여 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기혼	1주	경제활동인구	10,101	10,183	10,358	10,574	10,661	10,775	6,854	6,995	7,109	6,985	7,159	7,204
		실업자	322	280	208	222	230	257	149	137	107	123	131	151
	4주	비경제활동인구	1,764	1,816	1,813	1,935	1,979	2,080	7,182	7,229	7,275	7,566	7,537	7,682
		잠재실업자	69	49	29	28	32	46	64	40	21	30	36	34
미혼	1주	경제활동인구	10,119	10,197	10,369	10,584	10,672	10,793	6,874	7,008	7,120	6,996	7,172	7,216
		실업자	340	294	219	232	240	275	168	150	118	134	143	163
	4주	비경제활동인구	1,746	1,802	1,802	1,925	1,968	2,062	7,163	7,216	7,264	7,555	7,524	7,670
		잠재실업자	51	35	18	18	21	28	44	27	10	19	23	22
미혼	1주	경제활동인구	2,899	2,959	3,054	2,945	3,041	3,041	2,215	2,280	2,356	2,413	2,509	2,538
		실업자	291	281	259	265	279	281	151	147	134	166	173	183
	4주	비경제활동인구	2,758	2,761	2,697	2,666	2,630	2,636	2,413	2,355	2,301	2,257	2,201	2,187
		잠재실업자	32	27	19	27	25	27	22	15	10	14	15	20
미혼	1주	경제활동인구	2,915	2,975	3,066	2,955	3,056	3,055	2,227	2,292	2,365	2,422	2,518	2,549
		실업자	307	296	271	276	294	295	163	158	143	176	183	194
	4주	비경제활동인구	2,742	2,746	2,684	2,655	2,616	2,622	2,401	2,344	2,292	2,248	2,192	2,175
		잠재실업자	16	12	6	17	11	13	10	4	1	5	6	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실업자의 변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의 비중을 보면 기혼남성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기혼남성에서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혼여성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가장 낮아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착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혼남성과 여성의 상반된 결과와는 다르게 미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잠재실업자 비중을 가지고 있고, 2000년에 비해 차이가 없어 미혼의 구직활동 유동성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4〉 혼인상태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남 성						여 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월)
기혼	1주	3.9	2.7	1.6	1.4	1.6	2.2	0.9	0.6	0.3	0.4	0.5	0.4
	4주	2.9	1.9	1.0	0.9	1.1	1.4	0.6	0.4	0.1	0.3	0.3	0.3
미혼	1주	1.2	1.0	0.7	1.0	1.0	1.0	0.9	0.6	0.4	0.6	0.7	0.9
	4주	0.6	0.4	0.2	0.6	0.4	0.5	0.4	0.2	0.1	0.2	0.3	0.4

주: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특히 청년층(15~29세)과 중·장년층(30~49세)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구직기간 4주’ 기준의 청년층의 실업자는 추가실업자가 22천명이 증가한 412천명이었고, 30~39세는 10천명, 40~49세는 13천명의 추가실업자가 생겨나 각각 212천명, 173천명을 기록하여 청년층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청년층에서 실업통계 기준에 따른 실업자 차이가 큰 이유는 실업의 장기적 성향이 강한 30대 이상에 비해서 청년층에서의 구직활동은 단기적이고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서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청년층과 30대에서는 약 0.3~0.4%포인트의 감소를 보인 반면, 40대에서는 약 0.7%포인트의 감소를 보여 통계기준 변경의 효과를 보았다. 또한 40대에서는 2002년까지 감소폭이 두드러지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는 40대인 중·장년층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착했던 사람들이 2000년 이후 다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들의 실업자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구직기간에 따른 연령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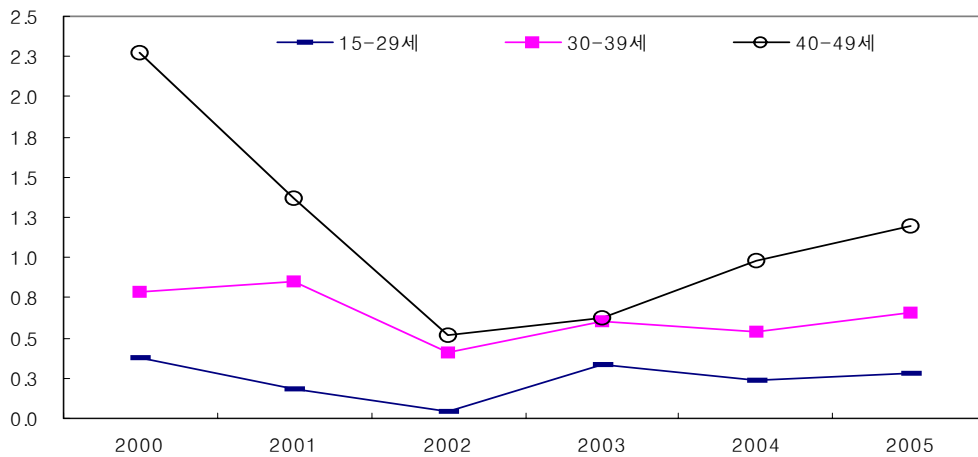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15~29세	1주	경제활동인구	5,281	5,203	5,140	4,989	4,969	4,883
		실업자	402	388	341	383	391	390
		비경제활동인구	5,962	5,749	5,511	5,379	5,171	5,079
	4주	잠재실업자	50	35	22	36	33	36
		경제활동인구	5,308	5,227	5,160	5,007	4,990	4,905
		실업자	430	413	361	401	412	412
30~39세	1주	비경제활동인구	5,934	5,725	5,491	5,361	5,151	5,057
		잠재실업자	23	11	2	18	12	14
		경제활동인구	6,355	6,359	6,389	6,367	6,367	6,315
	4주	실업자	217	193	177	182	186	202
		비경제활동인구	2,113	2,129	2,122	2,149	2,147	2,163
		잠재실업자	31	30	18	21	22	24
40~49세	1주	경제활동인구	6,369	6,371	6,398	6,376	6,377	6,325
		실업자	232	205	186	190	196	212
		비경제활동인구	2,098	2,117	2,113	2,141	2,136	2,153
	4주	잠재실업자	17	18	9	13	11	14
		경제활동인구	5,457	5,723	5,968	6,159	6,345	6,418
		실업자	180	162	111	128	139	161
50~59세	1주	비경제활동인구	1,446	1,538	1,598	1,684	1,684	1,726
		잠재실업자	43	30	16	18	25	33
		경제활동인구	5,468	5,732	5,975	6,166	6,353	6,431
	4주	실업자	190	171	119	135	147	173
		비경제활동인구	1,436	1,529	1,591	1,677	1,675	1,713
		잠재실업자	33	21	8	10	16	2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연령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



주 :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6>에서는 교육수준별로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에 따른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구직기간 4주’ 기준의 실업자는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 각각 263천명, 388천명으로 ‘구직기간 1주’ 기준에 비해 20천명, 21천명의 새로 포착된 실업자가 늘어났다.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각각 123천명, 152천명으로 6천명, 9천명의 낮은 추가실업자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저학력 계층에서 구직기간에 대한 유동성이 강한 실업자들이 많고 고학력 계층에서는 구직기간이 긴 장기실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기간 4주’ 기준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잠재실업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6> 구직기간에 따른 학력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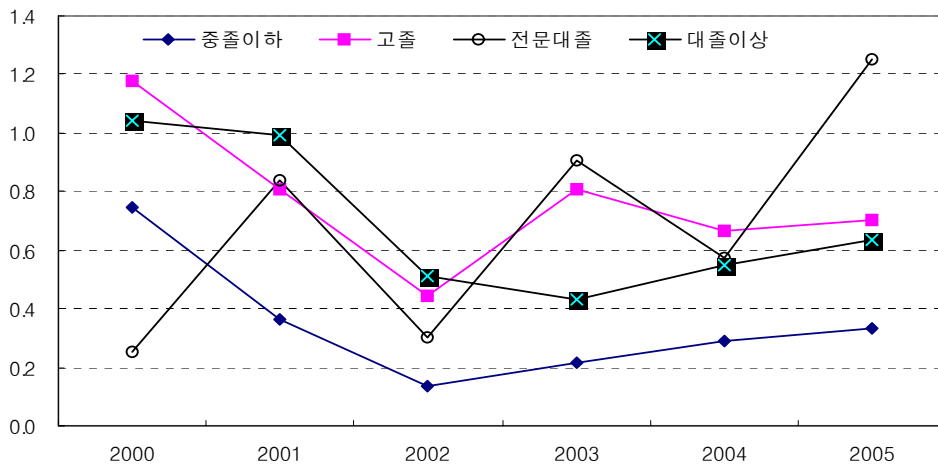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6월)
중졸이하	1주	경제활동인구	7,931	7,844	7,827	7,131	7,136	7,024
		실업자	318	279	217	217	239	243
		비경제활동인구	8,848	8,855	8,815	8,848	8,677	8,752
	4주	잠재실업자	92	53	29	35	41	49
		경제활동인구	7,957	7,865	7,843	7,147	7,152	7,044
		실업자	344	300	233	233	255	263
고졸	비경제활동인구	8,822	8,835	8,798	8,832	8,661	8,731	
	잠재실업자	66	32	12	19	25	29	
	경제활동인구	8,713	8,817	8,932	8,846	8,950	8,963	
고졸	1주	실업자	379	345	280	316	334	367
		비경제활동인구	3,663	3,631	3,527	3,587	3,583	3,657
		잠재실업자	68	50	30	44	43	46
	4주	경제활동인구	8,738	8,838	8,946	8,861	8,969	8,984
		실업자	405	366	294	331	353	388
		비경제활동인구	3,637	3,610	3,513	3,572	3,564	3,636
전문대졸	잠재실업자	43	29	16	29	24	25	
	경제활동인구	1,679	1,831	1,992	2,081	2,248	2,372	
	실업자	100	98	93	102	101	118	
전문대졸	1주	비경제활동인구	494	522	536	554	630	680
		잠재실업자	9	10	6	9	8	14
		경제활동인구	1,686	1,837	1,996	2,085	2,252	2,377
	4주	실업자	107	104	98	106	105	123
		비경제활동인구	486	516	532	550	626	675
		잠재실업자	1	4	2	5	4	8
대졸이상	1주	경제활동인구	3,746	3,925	4,127	4,857	5,036	5,199
		실업자	116	123	119	141	140	143
		비경제활동인구	1,113	1,153	1,208	1,435	1,456	1,496
	4주	잠재실업자	18	18	14	12	15	18
		경제활동인구	3,753	3,931	4,135	4,863	5,043	5,208
		실업자	123	129	126	147	147	152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107	1,147	1,200	1,429	1,449	1,488	
	잠재실업자	12	11	6	6	8	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잠재실업자의 수치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대졸에서 높게 나타나고 중졸 이하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저학력 계층에서의 순수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리고 '구직기간 1주' 기준에서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잠재실업자의 비중 이동을 보면, 중졸 이하에서 약 0.3%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 약 0.6%포인트, 전문대졸에서 0.8%포인트의 큰 감소를 보여 전반적으로 고학력 계층에서 구직활동기간 기준변경으로 잠재실업자 감소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문대졸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가 2000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학력별 잠재실업자 비중

(단위: %)



주: 잠재실업자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V. 맺음말

통계청에서 공식발표하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실업자로 존재했던 일부분을 공식실업자로 추가시켜 실업자가 증가했다. 본 논의에서는 이같은 기준 변경에 의한 실업자들의 변화와 그 의미를 조명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구직활동기간 변경으로 인한 가시적 변화는 2005년 상반기에 55천명의 추가실업자가

증가한 것이고 그 중 남성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남성에서의 취업욕구가 훨씬 강해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혼인상태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남녀 모두 기혼에서 추가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기혼남성의 잠재실업자 비중이 커 남성의 고용시장 진출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년층에서의 추가실업자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상대적으로 실업의 장기적 성향이 강한 40대 이상에서 잠재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력별로 특징을 살펴본 결과 추가실업자는 저학력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 비중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게, 중졸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에서의 공식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를 공식실업자로 일부 추가시켜 지표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 현실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취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불완전 취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별도의 실업지표로 포착하여 정책운용의 지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HLI**

<참고문헌>

- 강순희·전재식·이계오,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12.
 김용현,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월간 노동리뷰』, 제1호, 2005.
 정진호·남재량,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 고용 및 임금』, 한국노동연구원, 2003.
 황수경,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연구』, 제3권 제4호, 2003.